

미수복 고성군민회 망향제 거행



지난 28일 열린 미수복 고성군민회 망향제.

미수복 고성군민회는 지난 28일 현내면 대진리에 위치한 망배단에서 황종국 군수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미수복 고성군민회 회원 및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수복 고성군민회 망향제를 거행했다.

실향의 아픔과 고향에 대한 한을 달래고, 애타게 그리던 고향에 가보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열린 이날 망향제는 기원문과 조시 낭독, 추도사, 헌화,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미수복고성군민회는 이날 망향제를 통해 남북의 화합과 통일을 기원하고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녕을 빌었다. 또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의춘 미수복 고성군민회 회장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만 오늘 망향제를 통해 회원들과 망향을 한을 달래고, 서로를 위로하며 상부상조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활짝 웃고 소통하는 사회”

해당화 합창단, ‘제9회 강원도 장애인 하나되기 합창대회’ 은상

고성군 장애인연합회 회원 50명으로 구성된 해당화 합창단이 지난 25일 횡성군문화관에서 열린 ‘제9회 강원도 장애인 하나되기 합창대회’에 참가해 은상을 수상했다.

강원도 16개 시·군 556명이 참가한 이날 합창대회에서 고성군 해당화 합창단은 이경미 지휘자, 서정림 반주자와 호흡을 맞춰 지정곡으로 바위섬과 자유곡으로 새 몽금포타령을 불렀다.

해당화 합창단은 10월 한달 사이 시간을 틈틈이 내어 충분한 연습량이었지만 합창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는 단원들의 열정으로 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안았다.

고성군 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바쁜 일정을 차치하고 최선을 다



지난 25일 횡성군문화관에서 열린 ‘제9회 강원도 장애인 하나되기 합창대회’에 참가해 은상을 수상한 고성군 해당화 합창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 합창단을 인솔해주신 지휘자, 반주자와 아울러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장애인들이 활짝

웃고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고성경찰서 ‘누리봄’ 봉사활동 전개



고성경찰서 여경과 여직원들로 구성된 봉사활동 동아리 ‘누리봄’ 회원들은 지난 28일 토성면 청간리에 있는 유심복지원을 방문해 환경정리와 대화나누기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세계 등 생필품도 전달했다.

최광호 기자

올 겨울 제설작업 준비 ‘이상 무’

육군 22사단, 2011년 동계 재난대비훈련 실시

육군 제22보병사단은 지난 25일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예방조치 및 대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동계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했다.

사단이 위치한 영동지역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11월부터 4월까지 강한 바람이 지속돼 화재 발생 시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겨울철 폭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5일 2011년 동계 재난대비훈련에 참가한 병사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이날 재난대비 훈련은 동절기를 앞두고 사단 지역 내 발생 가능한 화재, 폭설 등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해 ‘인명·재산 피해 ZERO화’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훈련은 화재 및 폭설이 발생한 상황을 상정해 진행됐다. 강풍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자 장병들은 소화장비를 사용해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했으며, 뒤이어 폭설로 고립된 장병들

에 대한 구출훈련 및 각종 장비에 대한 구출훈련 및 각종 장비에 동원한 제설작전 등을 통해 장병 개개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숙달했다.

이와 함께 각 부대는 장병들에게 소화기 및 제설장비·물자에 대한 사용요령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등짐펌프·소화기·소화전 등 소화 장비의 작동상태를 확인했다. 폭설 시 장병 개개인의 제설도구와 굴착기·그레이더·페이로드·덤프 등 제설장비 일체에 대한 시험 운용과 점검에 나서는 등 동절기에 대비한 부대진단도 병행했다.

훈련이 끝난 뒤 이어진 강풍에서는 전방 GOP 등 격오지 부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소방헬기와 같은 기동장비의 지원이 제

한되므로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초기진압에 필요한 등짐펌프와 소화기 등 개인 소화장비의 셋트화 및 상황조치 능력의 숙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2사단 군수참모 조용찬 중령(43세, 육사 47기)은 “올 초 영동 지역 일대에 100여 년 만의 폭설이 내렸을 때에도 軍은 물론, 고성 지역 내에 단 한 건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사전에 이와 같은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오늘 훈련을 통해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더욱 내실화해 이번 동절기에도 그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점포매매

김밥천국
인수하실 분

“가격은 상담 후 결정”

김밥천국 고성점 ☎(033)681-9999